

... 하우리, NEC인터채널과 총판계약

하우리(대표 권석철)는 데이터복구 프로그램인 “데이터메디엔터프라이즈”의 일본 내 판매를 위해 일본의 NEC인터채널과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우리재팬을 통해 이뤄진 이번 계약으로 하우리는 3월 안으로 일

본어용 제품을 출시,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우리는 또 일본 내 온라인다운로드판매(ESD) 사이트인 소프트플라자 벡터 세븐드림 등과도 추가로 계약,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키로 했다.

... 마크로젠, 유전자적중 생쥐 日 수출

마크로젠(대표 서정선)은 일본 생명공학기업 트랜스지닉(대표 이데 쓰요시)에 4억원어치 이상의 유전자적중 생쥐(녹아웃마우스)를 내년 3월말까지 공급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아웃 마우스는 특정 유전자만을 제거, 파괴시킨 쥐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하고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이다.

유항재 부사장은 “정확한 수출물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소 물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억~8억원어치 정도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유전자적중 생쥐의 해외수출은 마크로젠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넷마블, 아이소닉 온라인과 퍼블리싱 계약

인터넷 게임포털 서비스 업체 넷마블(대표 방준혁)은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 아이소닉온라인(대표 이철호)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3D MMORPG 앨로드(ALOD)를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앨로드는 전형적인 3D MMORPG로 게임 전개가 빠르고, 조작이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이 게임은 또 마법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의 광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넷마블은 아이소닉온라인과의 계약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1만 2000명의 베타테스터를 선발, 앨로드의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고 최근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 베리텍, ‘헤리트’ 로 사명변경

유무선 통합서비스 시스템 업체인 베리텍(대표 한미숙)이 최근 대전 대덕밸리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며 사명을 ‘헤리트’로 바꾸고 ‘제2의 창업’에 나섰다. 헤리트는 기존의 회사명 베리텍(Verytech)이 타 회사 베리텍(Veritech)과 혼동의 여지가 있고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미지개선작업(CI)을 거쳐 부르기 쉽고 친근한 ‘헤리트’(HERIT)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명변경과 함께 기업로고도 사람을 뜻하는 ‘H’와 꿈과 이상을 뜻하는 별을 나타내는 로고로 바꿨다. 한미숙 대표는 “대전에서 서울로 회사를 이전한 것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의 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회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의 최초 여성 CEO인 한미숙 대표는 그동안 대덕밸리와 한국 여성 CEO기업의 대표주자로 활동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역량을 보여왔다.

이전주소 : (우) 135-8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7 덕봉빌딩 2~3층
전화 : 02-553-9633



... 비트교육센터와 이화여대, 산학 교육협력통해 IT전문가 공동 양성키로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신인령)와 산·학 협정을 체결하고 학내에 ‘이화여대 비트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화여대 비트교육센터’는 6개월의 장기과정과 2개월의 단기과정을 제공하며 교육을 이수한 이화여대생에게는 관련 학점을 인정해준다.

신인령 총장은 “대부분 대학이 IT인프라는 잘 갖추고는 있으나 기업이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탄탄한 이론과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레전자, LCD TV시장 진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이 보급형인 20.1인치 LCD TV(ELT-201A) 제품의 판매를 시작으로 첨단 디지털 TV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정문식 대표는 "이번에 판매하는 LCD TV는 400칸텔라에 이르는 고휘도 LCD 패널을 장착한 제품으로 화면의 깜빡임 현상을 완전히 제거해 장시간 시청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주는 미래형 TV"라고 말했다. 또한 화면의 크기를 확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화면상에서

두 가지 입력 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 기능을 지원하며 음성의 전환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한다. 동영상, 영화, 밝은 화면, 어두운 화면 등 영상의 종류에 따른 최적화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레전자산업은 LCD TV시장 진출로 2001년 366억원, 2002년 568억원으로 매년 50% 이상을 유지해 온 성장세가 올해도 875억원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네오위즈 무상증자로 유동성 확대 유망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는 150%(신주발행주식수 457만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보율 4969%, 부채비율 12.5%, 자본잉여금 524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대폭적인 무상증자에도 재무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네오위즈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동 주식수 부족이 무상증자로 인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영진이 주가 관리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네오위즈 무상증자는 단순히 자본금만 15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급상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라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주식수 부족으로 투자를 기피하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큐어소프트, 시큐리티 페어 2003 개최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가 '시큐어소프트 시큐리티 페어 2003'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큐어소프트는 새롭게 출시된 통합보안제품인 수호신 애플루트 시리즈를 비롯해 유·무선 공개키기반구조(PKI) 솔루션과 보안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인 온 고잉 시큐리티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시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의 김인석 IT연구실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보안정책 및 안전한 사이버금융 거래에 관해 소개했으며, 시큐

어소프트의 무선공인인증 톨 킷을 적용한 대우증권의 무선 사이버 주식거래 사례와 무선 민원발급 시스템 등이 시연돼 관심을 모았다.

김홍선 대표는 이날 애플루트·무선인터넷 보안·컨설팅을 3가지를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국내 보안시장 1위 탈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벤처기업, '공익마케팅' 붐

이니시스, 이노디지털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공익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자지불서비스전문기업 이니시스(대표 이금룡)는 굿네이버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자선단체와 협력해 관악구지역 결식아동들에게 후원금 보내기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니시스는 부모의 실직 및 가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들을 도우려고 지난해 2월부터 후원행사를 진행중이며, 현재는 신림 7동 달동네 어린이 6명과 결연을 맺고 있다. 또 후원금 보내기와 별도로 결식아동돕기 봉사활동을 사내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이니시스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대구시청에서 운영중인 성금모금사이트 나눔넷(nanum.daegu.go.kr)에서 신용카드로

성금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지불서비스 '이니페이'를 무상제공하고,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부가세를 자체 부담해 대구지하철 성금으로 적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식관리솔루션 개발업체인 이노디지털(대표 김종락)은 지난 2001년부터 한국복지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 아동들에게 후원자로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자는 취지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이노디지털이 사회환원을 통한 '나누는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실행하는 첫 공익 마케팅이다. 현재 이노디지털 전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모아 결연아동후원금으로 내고 있다. 향후 이노디지털은 이러한 사회환원사업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